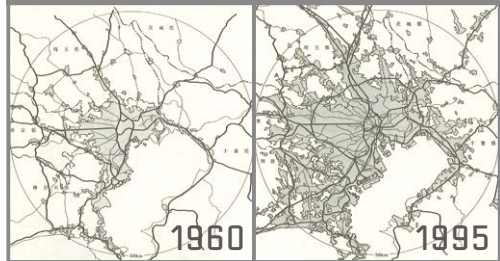


철도의 정비와 함께 발전한 시가지*1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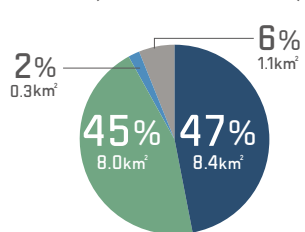
LAND USE

도쿄의 토지 이용*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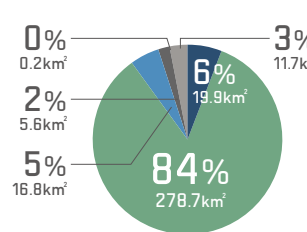
도쿄는 일본국토의 0.6%의 면적에 인구의 약10%인 1,300만명을 수용합니다. 그것은 다양한 토지의 이용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. 도쿄의 시가지는 철도의 정비와 함께 발달해 왔습니다.

민유 택지※의 용도별 내역 ■ 상업 ■ 주택 ■ 공업 ■ 농지 ■ 산림 ■ 그 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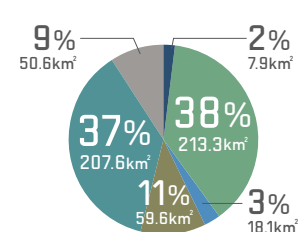
도심 3구(지요다구·주오구·미나토구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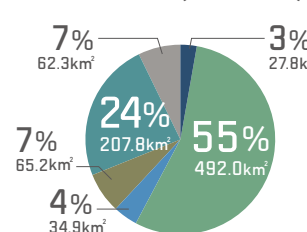
구부



다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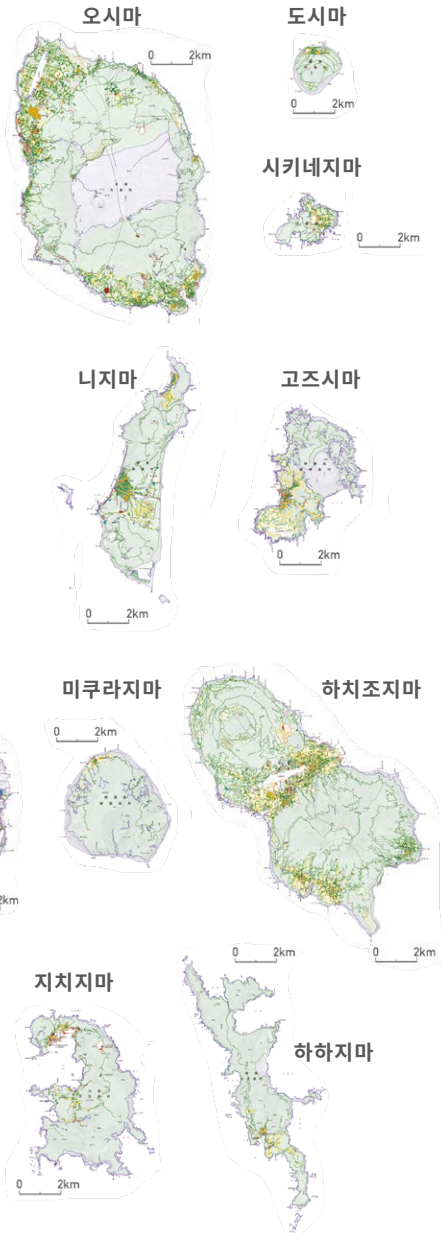


도쿄도 전체 (섬은 비포함)



- 관광청 시설
- 교육 문화 시설
- 후생 의료 시설
- 공급 처리 시설
- 사무실 건축물
- 전용 상업 시설
- 주상복합 건물
- 숙박·유흥 시설
- 스포츠·이벤트 시설
- 독립 주택
- 집합주택
- 전용 공장
- 주거 병용 공장
- 창고·운수 관계 시설
- 옥외 이용지·가설 건물
- 공원·운동장 등
- 미이용지등
- 농림 어업 시설
- 밭
- 논
- 수원지
- 채초 방목지
- 수면·하천·수로
- 산림
- 원야

1:30,000
0 3km



※ 민유 택지 ... 전체 면적으로부터 공유지등을 제외한 것. 출처: * 1 국토청 「1999년판 수도권 백서」 (1999년 5월) * 2 도쿄도 도시 정비국 「도쿄의 토지 2014(토지 관계 자료집)」 (2015년 10월)